2022년도 제 1회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제(1)교시

국

어

1.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자: 우리 학교 화단이 허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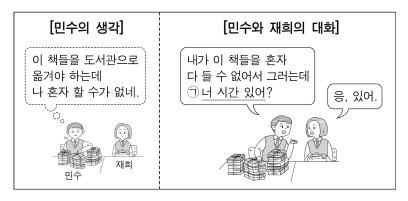
학생 1: 봄을 맞아 꽃들을 심는 건 어떨까요?

학생 2: 동의합니다. 꽃 이름을 알려주는 팻말을 함께

붙이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① 진로를 위한 상담이다.
- ② 문제 해결을 위한 토의이다.
- ③ 직업 선택을 위한 전문가 면담이다.
- ④ 전학 온 친구를 위한 학교 소개이다.
- 2. 다음 말하기 상황을 고려할 때 ①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재희'의 안부가 궁금하다.
- ② '재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③ '재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 ④ '재희'와 학교 밖에서 만나고 싶다.
- 3. 다음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 표준 발음법 ■

【제5항】'니'는 이중모음 [니]로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니'는 []]로 발음한다.

- ① 무늬[무니]
- ② 의자[의자]
- ③ 희망[희망]
- ④ 띄어쓰기[띠어쓰기]
- 4. 다음 밑줄 친 낱말이 문장에서 바르게 쓰인 것은?
 - 반드시: 틀림없이 꼭
 - 반듯이: 작은 물체, 또는 생각이나 행동 등이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않고 바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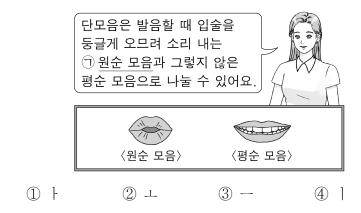
- ① 겨울이 가면 반듯이 봄이 온다.
- ② 이번 시험에는 반드시 합격할 것이다.
- ③ 비가 오는 날이면 반듯이 허리가 쑤신다.
- ④ 큰 지진 뒤에는 반듯이 피해가 일어난다.

5.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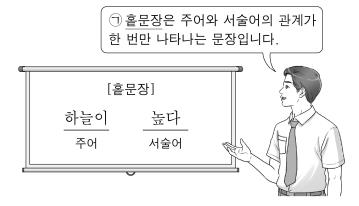
[탐구 과제]

관용 표현은 둘 이상의 낱말이 합쳐져 원래의 뜻과는 다른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말입니다. 그중 <u>신체</u> 부위와 관련한 관용 표현을 찾아봅시다.

- ① 아이가 눈이 작아서 귀엽다.
- ② 그는 귀가 얇아서 남의 말을 잘 믿는다.
- ③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배꼽 빠지게 웃었다.
- ④ 그는 사회생활을 많이 해서인지 **발이 넓다**.
- **6.** □에 해당하는 것은?



- 7.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것은?
 - ① 그는 매우 착하다.
 - ② 일을 빨리 끝내다.
 - ③ 새 옷을 꺼내 입다.
 - ④ 선물을 살며시 건네주다.
- 8. 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국화가 활짝 피었다.
- ② 민호가 소리도 없이 다가왔다.
- ③ 나는 노래하고 영희는 춤춘다.
- ④ 비가 그쳐서 지수는 외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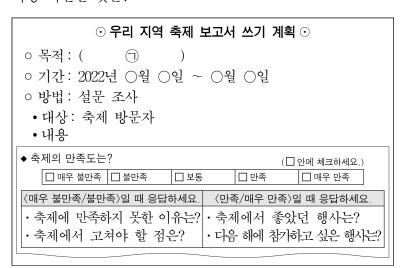
9.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근거 | 즉석식품을 자주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 필요한 |
|----|---------------------------|
| 1 | 여러 영양소가 결핍되기 쉽다. |
| 근거 | 즉석식품에는 나트륨과 식품 첨가물이 과다하게 |
| 2 | 함유되어 있다. |

→ 주장 (가)

- ① 즉석식품의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다.
- ② 즉석식품의 포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③ 즉석식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 ④ 즉석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 있다.

10. 다음은 글쓰기 계획의 일부이다. [□]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우리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 ② 우리 지역 청소년 시설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 ③ 우리 지역 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해
- ④ 전통 시장을 홍보해서 지역의 축제 예산을 늘리기 위해

[11~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층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드르륵거리는 ①소리에 머리털이 진저리를 치며 곤두서는 것 같았다. 철없고 상식 없는 요즘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집 안에서 자전거나스케이트보드 따위를 타게도 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았다. 인터폰의 수화기를 들자, 경비원의 응답이 들렸다. 내 목소리를 알아채자마자 길게 말꼬리를 늘이며 지레 짚었다. 귀찮고 성가셔하는 표정이 눈앞에 역력히 떠올랐다.

"위층이 또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해 달라고 말씀드릴까요?" 잠시 후 인터폰이 울렸다.

"충분히 주의하고 있으니 염려 마시랍니다."

경비원의 전갈이었다. 염려 마시라고? 다분히 도전적인 저의(底意)¹⁾가 느껴지는 전언이었다. 게다가 드르륵드르륵소리는 여전하지 않은가? 이젠 한판 싸워 보자는 얘긴가? 나는 인터폰을 들어 다짜고짜 909호를 바꿔 달라고 말했다. 신호음이 서너 차례 울린 후에야 신경질적인 젊은 여자의 응답이 들렸다.

"아래층인데요. 댁이 그런 식으로 말할 건 없잖아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공동 주택에는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난 그 ①소리 때문에 병이 날 지경이에요."

"여보세요 난 날아다니는 나비나 파리가 아니에요 내 집에서 맘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나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틀 거리로 전화를 해대시니 저도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저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하여튼 아래층 사람 고통도 생각하시고 주의해 주세요." 나는 거칠게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뻔뻔스럽긴. 이젠 순배짱이잖아?" 소리 내어 욕설을 퍼부어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경비원을 사이에 두고 '하랍신다', '하신다더라' 하며 신경전을 펼 수도 없는 일이었다. 화가 날수록 침착하고 부드럽게 처신해야 한다는 것은 나이가 가르친 지혜였다. 지난겨울 선물로 받은, 아직 쓰지 않은 실내용 슬리퍼에 생각이 미친 것은 스스로도 신통했다. 선물도 무기가 되는 법. 발소리를 죽이는 푹신한 슬리퍼를 선물함으로써 ⓒ 소리를 죽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내 심정을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으리라. 사려 깊고 양식 있는 이웃으로서 공동생활의 규범에 대해 조곤 조곤 타이르리라.

위층으로 올라가 벨을 눌렀다. 안쪽에서 "누구세요?" 묻는 ② 소리가 들리고도 십 분 가까이 지나 문이 열렸다. '이웃 사촌이라는데 아직 인사도 없이……' 등등 준비했던 인사말과 함께 포장한 슬리퍼를 내밀려던 나는 첫마디를 뗄 겨를도 없이 우두망찰했다.²⁾ 좁은 현관을 꽉 채우며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자가 달갑잖은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안 그래도 바퀴를 갈아 볼 작정이었어요. 소리가 좀 덜 나는 것으로요. 어쨌든 죄송해요. 도와주는 아줌마가 지금 안 계셔서 차 대접할 형편도 안 되네요."

여자의 텅 빈, 허전한 하반신을 덮은 화사한 빛깔의 담요와 휠체어에서 황급히 시선을 떼며 나는 할 말을 잃은 채 부끄러움 으로 얼굴만 붉히며 슬리퍼 든 손을 등 뒤로 감추었다.

- 1)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한, 속에 품은 생각.
- 2) 정신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 오정희, 「소음공해」-

- 11. 윗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경비원은 층간 소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 ② 위층 여자는 아래층의 소음에 대해 여러 번 항의했다.
 - ③ '나'는 위층 여자의 사정을 알고 나서 부끄러움을 느꼈다.
 - ④ '나'는 위층 여자를 오해했던 것이 미안하여 사과의 선물을 전달했다.
- 12. 윗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고자 할 때, 준비할 소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 ① 화사한 빛깔의 담요
- ② 선물로 준비한 과일
- ③ 포장된 실내용 슬리퍼
- ④ 바퀴 소리가 큰 휠체어
- 13. ¬~② 중 성격이 다른 것은?

 \bigcirc

② (L)

3 🗉

④ 🕏

[14~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열무 삼십 단을 이고 □<u>시장</u>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A]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 <u>배춧잎</u>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 간 ② <u>창틈</u>으로 고요히 빗소리 __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¹⁾의 윗목²⁾

- 기형도, 「엄마 걱정」 -

- 1) 나이가 어린 때.
- 2) 온돌방에서 아궁이로부터 먼 쪽의 방바닥. 불길이 잘 닿지 않아 아랫목 보다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이다.
- 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른이 된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한다.
 - ②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여 현실을 비판한다.
 - ③ 의성어를 통해 어머니의 발소리를 경쾌하게 표현했다.
 - ④ 감각적 표현을 통해 유년의 행복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15.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먼 것은?
 - ① 무서움 ②
- ② 외로움
- ③ 쓸쓸함
- ④ 부끄러움
- 16. ¬~② 중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일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u>이것</u>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 \bigcirc
- 2 (
- (3) (E)
- 4 2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규중 부인이 아침 단장을 마치매, 칠우가 모여 할 일을 함께 의논하여 각각 맡은 일을 이루어 내는지라. 하루는 칠우가 모여 바느질의 공을 의논하는데 ① <u>척</u> 부인이 긴 허리를 뽐내며 말하기를,

"여러 벗들은 들으라. 가는 명주, 굵은 명주, 흰 모시, 가는 실로 짠 천, 파랑, 빨강, 초록, 자주 비단을 다 내어 펼쳐 놓고 남녀의 옷을 마련할 때, 길이와 넓이며 솜씨와 격식을 내가 아니면 어찌 이루리오. 그러므로 옷 짓는 공은 내가 으뜸이 되리라."

① <u>교두 각시</u>가 두 다리를 빠르게 놀리며 뛰어나와 이르되, "척 부인아, 그대 아무리 마련을 잘한들 베어 내지 아니하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내 공과 내 덕이니 네 공만 자랑 마라."

세요 각시가 가는 허리를 구부리며 날랜 부리 돌려 이르되, "두 벗의 말이 옳지 않다. 진주 열 그릇이라도 꿴 후에야 보배라 할 것이니, 재단에 두루 능하다 하나 내가 아니면 옷 짓기를 어찌하리오 잘게 누빈 누비, 듬성하게 누빈 누비, 맞대고 꿰맨 솔기, 긴 옷을 지을 때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어찌 잘게 뜨며, 굵게 박아 마음대로 하리오. 척 부인이 재고 교두 각시가 옷감을 베어 낸다 하나, 나아니면 공이 없으련만 두 벗이 무슨 공이라 자랑하느뇨."

© <u>청홍흑백 각시</u>가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하여 화내며 말 하기를,

"세요야, 네 공이 내 공이라. 자랑 마라. 네 아무리 잘난 체하나 한 솔기나 반 솔기인들 내가 아니면 네 어찌 성공하리오."

리감투 할미가 웃으며 이르되,

"각시님네, 웬만히 자랑하소.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기씨네 손부리 아프지 아니하게 바느질 도와드리나니, 옛말에 이르기를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꼬리는 되지 말라'고 했소. ② 청홍흑백 각시는 세요의 뒤를 따라다니며 무슨 말을 하시느뇨. 실로 얼굴이 아까워라. 나는 매양 세요의 귀에 찔렀으나, 낯가죽이 두꺼워 견딜 만하여 아무 말도 아니하노라."

- 규중의 어느 부인, 「규중의 일곱 벗」-

17. ¬~¬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적절한 것은?

| | 외적 특징 | 실제 사물 |
|------------|------------|---------|
| \bigcirc | 긴 허리 | 자 |
| (L) | 두 다리 | 다리미 |
| ₪ | 두꺼운 날 | 골무 |
| 2 | 붉으락푸르락한 얼굴 | 가위 |

 \bigcirc

2 (

3 🗀

4 2

18. 윗글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칠우가 모여 함께 이루어 내는 일은 ()이다.

① 옷 만들기

② 집 안 정리하기

③ 규중 부인 깨우기

④ 규중 부인의 머리 꾸미기

- 19. ②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야기를 좋아하는 규중 부인
 - ② 바늘이 꽂혀 있는 골무의 모습
 - ③ 화려하게 장식된 규중 부인의 방
 - ④ 바늘귀에 꿰여 달려 있는 실의 모습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름밤에 잠을 못 자게 하는 두 가지 공포는 밤새도록 더위가 가시지 않는 열대야 현상과 ① 이다. 밤새 가로수에 매달려 우는 매미 때문에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다.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의 경적도 시끄럽지만, 매미의 기세도 보통이 아니다.

하지만 매미는 원래 밝은 낮에만 울고 어두워지면 울지 않았다. 매미의 수컷이 내는 소리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주변에 있는 매미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둘째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셋째 암컷을 유인해 짝짓기를 하는 것이다. 특히 매미의 울음소리는 수컷이 암컷 매미를 만나 짝짓기를 하여 종족을 번식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신호인 셈이다. 그런데 가로등이나 상점 간판의 네온사인, 자동차의 전조등과 같은 인공 불빛으로 밤이 너무 밝아지자 낮이 아닌데도 매미들이 우는 것이다.

사람도 및 공해의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 사는 아이들은 시골에 사는 아이들보다 안과를 자주 찾는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는 밤에 항상 불을 켜 놓고 자는 아이의 34퍼센트가 근시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불빛 아래에서는 잠드는 데 ① 걸리는 시간인 수면 잠복기가 길어지고 뇌파도 불 안정해진다. 이 때문에 도시의 눈부신 불빛은 아이들의 깊은 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도시의 및 공해로 인해 생물체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생물체가 살아가려면 햇빛이 필요하듯이 어둠과 고요도 꼭 있어야 한다. 어둠 속에서 편히 쉬어야 다시 생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생명을 위해 이제 도시의 밤하늘에 어둠과 고요를 돌려주자. 인공의 불빛이 아닌 자연의 별빛을 밝히자.

- 박경화, 「도시의 밤은 너무 눈부시다」 -

- 20. 윗글의 ③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파트 위층에서 들리는 세탁기 소리
 - ② 운동장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 ③ 집 안에서 키우는 반려견의 발자국 소리
 - ④ 창밖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매미 울음소리
- 2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질문을 통해 화제에 집중하게 하고 있다.
 - ② 속담을 이용하여 독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③ 과장된 수치를 사용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④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를 인용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 22. ①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감기에 걸리다.
 - ② 그림이 벽에 걸리다.
 - ③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다.
 - ④ 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극과 북극 가운데 어디가 더 추울까? 남극이 훨씬 춥다.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지고 쉽게 식는다. 남극은 이러한 육지가 밑에 있어서 한겨울에 해당하는 8월 말 무렵이면 높은 곳에서는 기온이 영하 70℃ 가까이 내려 간다고 한다. 역사상 최저 기온은 영하 89℃였다. 이러한 기후 조건 때문에 남극에는 연구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 외에는 원주민이 없다. ☐ 남극의 추위를 견뎌 내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북극은 주변에 있는 바다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얼음 덩어리보다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 상승하는 따뜻한 공기 때문에 겨울에는 최저 기온이 영하 30~40℃ 까지 내려가지만, 여름에는 영상 10℃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 그리고 북극에는 우리가 에스키모라고 알고 있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인들이 살아가고 있다.

- 고현덕 외, 『살아있는 과학 교과서 1』 -

- 23.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북극이 남극보다 훨씬 춥다.
 - ② 북극은 해류의 영향을 받는다.
 - ③ 이누이트인이 북극에 살고 있다.
 - ④ 육지는 바다에 비해 쉽게 데워진다.
- 2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윗글은 남극과 북극의 () 특징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① 경제적 ② 기후적 ③ 문화적 ④ 역사적
- 25. ①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또한 ② 그러나 ③ 왜냐하면 ④ 예를 들면